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말씀읽기: 요한 6,51-59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²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체와 성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말입니다.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6,51)

인간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살수 있지만 영혼은 빵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빵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나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

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 육신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구원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신앙인들은 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의 성체를 모십니다. 주님의 모셨기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성체를 모신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 ①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 ② 주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 ③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반갑게 인사하려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 ④ 몸은 힘들지만 수고의 땀을 흘리며 형제자매들의 기쁨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기쁘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 ⑤ 기타

하느님 체험이 있는 이들,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으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옆에 계심을 알고 있기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나누고, 기뻐하며 희생합니다. 하느님 체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신앙안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친구들과 비신자 친구들의 차이점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비신자들과 함께 있어 보면 ‘의로움과 성실함, 정직함과 배려’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머물렀다 떠난 자리와 비신자들이 머물렀다 떠난 자리는 다릅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양심성찰과 비신자들의 양심성찰은 다릅니다. 기도하고, 미사에 참례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피정과 교육을 받고, 실천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주일학교 친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2: 하느님 체험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느님 체험이 있는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다음 중 기도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기쁨이 충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 ② 기도하려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합니다.
- ③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봉사를 자주 합니다.
- ④ 자신과 공동체에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친구가 제의방에서 복사를 준비하다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성체는 ‘과자’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고백을 해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교회가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로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자연적인 양식을 영하는 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성의 분별과 신심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첫영성체 교리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시키고, 첫 고백을 통해서 합당한 자세를 준비시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말다툼을 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6,52) 이해가 되지 않자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거부합니다.

사실 자기 살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밀떡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요한6,53)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6,5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체 기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성체 기적은 8세기 이탈리아 란차노(Lanciano)에서 일어났는데, 미사 중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 최초의 성체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성혈과 심장 근육 조직으로 판명된 성체가 1,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머물던 성 바실리오회 소속의 한 수사 신부님이 미사 집전 중,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마음으로 의심을 품었는데, 축성 기도문을 바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했습니다.

1970년과 1971년에 기적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해부학, 병리 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이며 아레쑤(Arezzo)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오도아르도 리놀리(Odoardo Linoli)박사가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 해부학 교수였던 유명한 로저 베르텔리 교수의 도움을 받아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성체 기적의 성혈은 참으로 피이며, 성체는 참된 살이다.
2. 그 살은 심장의 근육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그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4. 피와 살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5.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6. 피에서는 또한 다음의 무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



교수는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a.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라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 b.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 c. 그러므로,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1973년에 이태리의 의사이며 생물학자인 요셉 비온디니(Joseph Biondini) 교수는 세계 건강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세계 건강 기구는 이 보고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곱 나라들로부터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놀리 교수의 분석 결과를 조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핵 의학 등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었던 15개월 간의 연구 끝에 그 국제적인 과학 위원회는 리놀리 교수의 결론들을 완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세계 건강 기구의 공식 출판물들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UN 산하의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래가 없는 케이스"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1263년 독일의 어떤 사제가 로마를 순례하던 중, 「볼세나」에 들러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봉헌하면서 “**과연 밀떡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계신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중에 갑자기 밀떡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밀떡이 살덩어리로 변했고, 성작에 있던 포도주가 피가 되어 잔에 흘러넘쳤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그때의 교황님이신 「우르바노 4세」께서는 “성체 축일”로 제정하셨습니다. 당시 성혈이 묻은 바닥의 대리석은 성당(성녀 크리스티나 대성당) 내부에 전시되어 있고, 성혈이 묻은 성체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오르비에토 두오모 대성당을 건축하여, 성당 내부 ‘성체포 경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주님의 성체를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까.
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요한6,55) 자동차는 연료가 없으면 멈춰 버립니다. 미사 참례 한번 안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성체 한 달 영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숨이 막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미사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난 벌써 걷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 죽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나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매미사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오시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딘 마음으로 모셔도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길 청하며 두 손 내밀어 ‘아멘.’합시다.

질문 4: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6,5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 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6,51)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 ③ 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사랑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세우신 성사로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성사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사랑이신 그분과 일치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며, 힘을 내서 더욱 열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담으셨습니다.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을 담으셨습니다. 내 눈에는 빵과 포도주만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이 없다면 밀떡과 포도주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빵과 포도주를 형식적으로 받아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밀떡속에 숨어 계신 주”

밀떡 속에 숨어 계신 주, 감실 안에 갇혀 계신 주 나를 위해 당신 낮추어 밀떡속에 숨어 계세요. 음음. 부끄럽게 두손 내밀면 죄를 짓고 두 손 내밀면 마음 아파 하시면서도 제 맘속에 들어오세요. 음음. 예수님! 저 때문에 빵이 되어 감실 안에 계시나 밀떡 속에 예수님을 나는 자주 외면했어요. 음음. 오늘부터 성체를 자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큰 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래요. 음음

밀떡 속에 숨어 계신 주, 감실 안에 갇혀 계신 주, 나를 위해 당신 낮추어 밀떡속에 숨어 계세요. 음음. 주님모습 안보이지만, 흰빵만이 보여지지만 밀떡 속에 현존하시며 나를 위해 희생하세요. 음음. 예수님! 사랑으로 빵이 되어 내게 다가 오시나 믿음 없이 습관처럼 예수님을 받아 모셨죠. 음음. 영원생명 양식인 예수님의 귀-한성체 감사하며 두 손 내밀어 예수님과 하나 될래요. 음음

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고백성사를 통해서 부족한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은총지위에서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고백성사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 고백성사보지요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개하고 고백해
나의주님 나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고백성사 본 후에는 두 손모아 보속해

알면서도 고백안하면 죄를 보태 나와요. “이밖에”에 대죄 덮어 고백하면 안 돼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솔직하게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라져.

첫영성체

첫영성체는 최초로 영성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몸인 성체를 영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성숙성’이

요구되어 유아들의 영성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로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는 이성(理性)을 쓸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어린이가 고해성사(告解聖事)와 함께 첫 영성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자연적인 양식을 영하는 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성의 분별과 신심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첫영성체 교리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시키고, 첫 고백을 통해서 합당한 자세를 준비시킵니다.

교회법 제913조는 다음과 같이 첫영성체를 규정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첫영성체는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성체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며, 주님의 성체를 모신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영성체에 대한 열망을 키워주고, 신앙적인 지식을 주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 함께 해야 하기에 부모 교육도 병행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들을 다음과 같이 이끅니다.

첫째, 성체성사가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시며, 당신의 몸을 빵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둘째, 성체성사의 삶은 나눔과 희생과 봉헌의 삶이기에 성체를 모신 주님의 자녀들은 나눔과 희생과 봉헌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셋째, 성체성사는 은총지위에서 받아 모셔야 하는 것이기에 은총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넷째, 주님의 성체를 모시려하는 모든 이들은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기에, 은총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사의 고백성사를 알려주고, 충실하게 고백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첫영성체를 반드시 “이날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교회는 18세기부터 첫영

성체를 부활 2주일에 행했습니다. 부활제 2주일은 사백주일이라고 했는데, 부활주일에 세례 받은 신자들이 그 영혼의 결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다가 부활 제 2주일에 벗었던 관습에서 사백주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이날 첫영성체를 거행하는 축제의 날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성체신심이 강조되는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첫영성체를 거행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은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초를 들고 행렬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흰옷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초는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며, 빛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빛이신 주님과 함께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당신부는 어린이들이 첫영성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니며, 그 준비가 충분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고해신부 또는 양친, 후견인에 속합니다. (교회법 914조). 교회는 어린이들의 첫영성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당신부에게 교육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회법 777조는 본당신부가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 ②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참회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할 것.
- ③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 교육을 받도록 할 것.
- ④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 ⑤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식과 계획으로써 강화되고 개화되며 발전되도록 할 것.

또한 교회법 제914조는 부모와 대부모, 본당신부가 어린이들의 첫영성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째, 가정 안에서 기도하게 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체성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눔과 희생과 봉헌의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신앙의 교사인 부모를 통해서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를 더욱 열망하게 됩니다.

셋째, 부모는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자녀들이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성당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자주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고해성사를 받게 되고,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째, 부모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는 계명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섯째,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일치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로 더욱 사랑을 불태울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부모는 자녀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영성체는 영성체를 하는 자녀나 부모나 대부모, 본당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첫영성체를 떠올리며 지금 내가 성체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부모는 자녀가 주님의 성체를 모심에 기뻐 뛰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주님의 성체를 모시면서 서서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공동체는 첫영성체를 축하해 주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해주고 기억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며,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멋진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의 삶입니다.

3. 정리해 봅시다.

- ① 내가 첫영성체 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습니까? 나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②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어떤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함을 강력하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③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당에서 성체성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 실천사항

성체성사의 삶을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해보기

5. 말씀으로 기도하기

[illegible]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느님 아버지!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등으로 말씀에 감동받은 부분을 가지고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감동, 기쁨, 사랑, 행복, 통회, 감사, 열정 등)을 한 구절 선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있습니다/되었습니다./~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기쁨과 행복, 사랑, 감사,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통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가

하소서/ 주소서/~ 도록 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사항을 2-3개 정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그 결심(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

광을 드리게 하소서.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착한 행동과 사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형제자매들에게는 작은 모범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